

중국어 형식동사 ‘주(做)’와 ‘고(搞)’의 의미·기능 비교

이 슬 기*

<目次>

I. 서론	IV. 현대 중국어 ‘주(做)’와 ‘고(搞)’의 의미·기능 비교
II. 선행연구	1. 做와 搞의 통사 형식 비교
III. 형식동사 ‘주(做)’와 ‘고(搞)’의 기능 변천	2. 做와 搞의 의미·화용 비교
	V. 결론

I. 서론

형식동사(形式動詞)란, 구체적인 어휘 의미를 지닌 실질 동사와 달리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 주로 통사적 혹은 수사적 기능을 하는 동사를 가리킨다. 전통문법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를 형식동사 혹은 허의동사(虛意動詞)¹⁾

* 협성대학교 웨슬리창의융합대학 초빙교수

- 1) 중국어 전통문법 학자들의 형식동사에 대한 서로 다른 명칭:
- ① 형식동사(形式動詞): 吕叔湘 1980; 周刚 1986; 李临定 1990 등.
 - ② 허의동사(虛義動詞): 袁杰、夏允贻 1984; 文炼、袁杰 1990 등.
 - ③ 허화동사(虛化動詞): 朱德熙 1985.
 - ④ 선도동사(先導動詞): 范晓 등 1987.
 - ⑤ 무색동사(无色動詞): 宋玉珂 1982.
 - ⑥ 괴뢰동사(傀儡動詞): 言久圣 1981.
 - ⑦ 대동사(代動詞): 陈宁萍 1987.
 - ⑧ 비명사 목적어 동사(能帶非名詞賓語的動詞): 胡裕树 1981; 黄伯荣 1983; 莱文兰 1986.

라 하였고, 생성 문법학에서는 경동사(輕動詞, Light verb)라 부른다.

형식동사는 자연히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문맥 의존도가 높으므로, 주로 후행 목적어나 기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와 결합된 성분에 의해 구체화된다. 周剛(1987)은 주로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형식동사를 ‘하다(做)’류 동사와 ‘처리(處置)’류 동사로 분류하였는데, 전자는 ‘进行(行), 从事, 做, 作, 搞, 干, 弄’ 등이고 후자는 ‘加以(加), 给予, 予以(予), 给以’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동사의 성질, 특성, 용법 등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므로, 이러한 동사류의 명칭, 분류 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여전히 상이하다. 그러므로, 모국어 화자 뿐 아니라 비모국어 화자가 이들 동사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① a. 这件事难道是我做错了吗? (이 일이 내 잘못이라는 겁니까?)
 b. 这件事难道是我搞错了吗? (상동) (刁晏斌, 2004)

예문 (1a)와 (1b)에서, ‘주(做)’와 ‘고(搞)’는 모두 ‘(~을) 하다’의 의미로 목적어 위치에 ‘틀리다’ 의미 동사 ‘착(錯)’과 함께 하나의 동사구(VP[V+C])를 형성하여, 동일하게 ‘잘못하다’ ‘실수하다’ 의미를 나타낸다. 언뜻 보기에, 이들은 동일한 통사, 의미 기능을 지녀 상호 교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두 예시에 사용된 ‘做’와 ‘搞’는 통사구조는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적 특성을 갖는다. 刁晏斌(2004)에 따르면, (1a)의 ‘주(做)’는 실사적 성질이 강하여 목적어 위치에 명사 ‘일(事)’이 내포되어 ‘일을 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의미 중심이 ‘주(做)’ 자체에 있는 반면, (1b)의 ‘고(搞)’는 더 허화된 전형적인 형식동사로 쉽게 결합 성분의 영향을 받아 의미 중심이 보어 성분인 ‘착(錯)’에 있다. 그럼, 동일한 형식동사인 두 동사의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왜 발생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두 형식동사 ‘주(做)’와 ‘고(搞)’의 코퍼스 용례를 바탕으로, 통사·의미·

화용적 특성 및 차이에 대해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중국어의 형식동사는 비록 많은 수를 차지하지는 않으나, 오랜 기간 사용되고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많은 학자들에게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呂叔湘(1981)은 ‘进行, 加以, 予以’류 어휘가 2음절 동사를 갖는 규칙을 논의하며, 이들을 ‘형식동사’라 하고 술어동사구를 형성하기 위한 문법적 기능을 하며 구체적인 동작 의미는 후행 동사가 나타낸다고 하였다. 袁杰, 夏允贻(1984)는 맨 처음 허의동사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허의동사(虛動)의 역사변천, 통사기능, 수사역할 및 다른 언어 동류 현상과의 비교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朱德熙(1985)는 처음으로 중국어 서면어의 비명사성 동사와 허화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进行, 加以, 给予, 予以, 作’등을 그 예로 설명하였다.

개별 허의동사의 비교 연구를 보면, 周刚(1987)은 주로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형식동사를 ‘하다(做)’류 동사(进行(行), 从事, 做, 作, 搞, 干, 弄)와 ‘처치(處置)’류 동사(加以(加), 给予, 予以(予), 给以)로 분류하고, 이들의 차이를 상세히 논하였다. 王健(2002)은 ‘干’, ‘做’, ‘搞’의 연어 범위와 동사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 동사의 통사, 의미적 차이를 논의하였고, 齐丽娟(2008)은 ‘打’, ‘搞’, ‘干’, ‘弄’, ‘做’를 대상으로 통사·의미·화용적 측면에서 이들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蒋铭(2013)은 탈범주화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어 형식동사의 탈범주화가 통사·의미·화용적 측면에서 발현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관한 이론적 묘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颜欣欣(2014)는 의미, 용법, 문체의 세 각도에서 ‘做’, ‘搞’, ‘干’, ‘弄’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였고, 네 동사 모두 ‘어떠한 일이나 활동에 종사하다’의 의미

를 지니지만, ‘做’, ‘干’의 의미는 비교적 실제적이고 ‘搞’, ‘弄’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허하며, 이들이 수반하는 목적어, 보어 및 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지닌다고 하였다.

국내 학자들도 중국어 형식동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김선아(2002)는 ‘進行’, ‘作’, ‘加以’, ‘給以’, ‘給予’를 주요 대상으로 중국어 형식동사의 통사, 의미, 화용적 특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조은경(2003)은 ‘搞’를 포함한 ‘弄’, ‘做’, ‘幹’, ‘辦’ 등 의미역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함께 결합하는 빈어나 언어 환경에 따라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을 ‘搞’류 동사로 정의하고, 통시적·공시적 각도에서 이들의 통사, 의미, 화용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명사성 목적어와 동사성 목적어를 모두 가질 수 있고, 구체적 언어 환경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등 일반 동사와 다른 특징을 지니므로 이들 동사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박덕준(1999)은 ‘搞’, ‘弄’, ‘做’를 형식동사로 분류하였고, 손경옥(2002)은 ‘搞’가 명사성 빈어와 결합 시 대동사, 동사성 빈어와 결합 시 형식동사의 기능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홍연옥(2016)은 문법화의 각도에서 ‘搞’가 형태론적으로 형식동사와 유사한 2음절의 명동사를 취할 뿐, 형식동사의 통사적, 화용적 기능에 부합되지 않고 동사 의미를 대신하거나 화자가 고의로 모호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도입된다는 점에서 대동사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통사·의미·화용적 각도에서 형식동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통사 기능의 독특성과 의미 기능의 모호성으로 정의와 분류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형식동사에 대한 종합적인 묘사와 서술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실제 코퍼스 용례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두 형식동사 ‘주(做)’와 ‘고(搞)’를 통시적, 공시적 각도에서 특징과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다(用为), (관계 등을) 맺다(结成(关系))’ 등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며,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는 “작의 속자이며, 자휘는 거성을 취한다. 【正字通】俗作字, 字彙租去聲。”라고 하였다.

刁晏斌(2004)에 따르면, ‘주(做)’가 ‘어떠한 일이나 활동에 종사하다’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남북조’ 시대부터이며, 당오대 이후 그 사용빈도와 범위가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공기 대상 또한 구체적 사물이나 행위에서 점차 개념이나 관념성 어휘로 점차 허사화되었다고 하였다.

- ③ a. 我且不做买卖, 和你一同家去。 《水许全传》
(일단 장사는 그만하고, 너와 같이 집에 가겠다.)
b. 尤氏见他两个不肯作主, 又怕惜春寻死, 自己便硬做主张。《红楼梦》
(유씨는 두 사람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자살할까 두려운 마음에 더 강하게 자기 뜻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고(搞)’는 ‘주(做)’보다 훨씬 늦게 출현하였는데, 《說文解字》에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후 서남(西南)방언에서 ‘攪’의 독음을 흡수하여 ‘作, 干, 弄, 办, 从事’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추상적 의미가 두드러졌다. ‘搞’가 처음 대량으로 사용된 것은 1928년 11월 편찬된 마성토크의 중편소설 《倪焕之》이며, 1950년 전후 서남방언에서 정식으로 현대 중국어로 흡수되어 기본적인 어휘의미와 문법기능이 확립되어, 1978년 새로 편찬된《사해(辞海)》에 현대 중국어 의미의 어휘 ‘搞’가 정식으로 수록되었다.³⁾

- ④ a. 另外, 上船开行之时, 须另办神福, 给水神搞劳。 《玉历宝钞》
(또한, 배가 출발할 때 반드시 물의 신께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한다.)
b. 焕之是经过侯相的推动, 还是由于自己下意识的支配, 他简直搞不清楚。
《倪焕之》

3) 杨亚楠, 《泛义动词“做”、“干”、“搞”、“弄”的比较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论文, 2017, 44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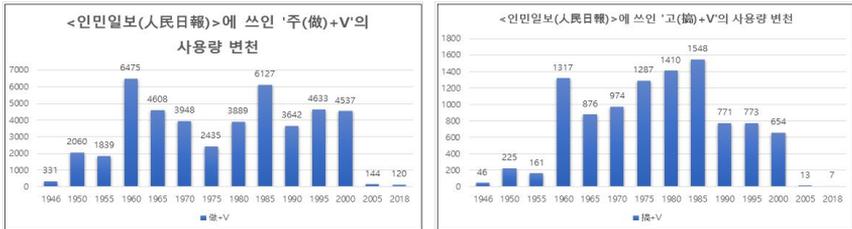
(환지는 주변인들의 바람 때문인 지 자의식의 지배 때문인 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주(做)’와 ‘고(搞)’는 각각 다른 시기에 탄생하여 서로 다른 변천과정을 거쳤으나, 두 동사의 형식동사 기능은 모두 동사구 목적어를 가지며 현대 중국어에서 비로소 크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동사구(VP)와 결합하는 ‘주(做)’와 ‘고(搞)’의 BCC 코퍼스 역대 사용량을 보면, 두 동사 모두 1946년 이후 동사구 목적어와 결합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사용량이 증가하였는데, ‘주(做)’는 2003년 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여전히 상당수 사용되는 반면, ‘고(搞)’는 1976년 사용량이 폭등했다가 점차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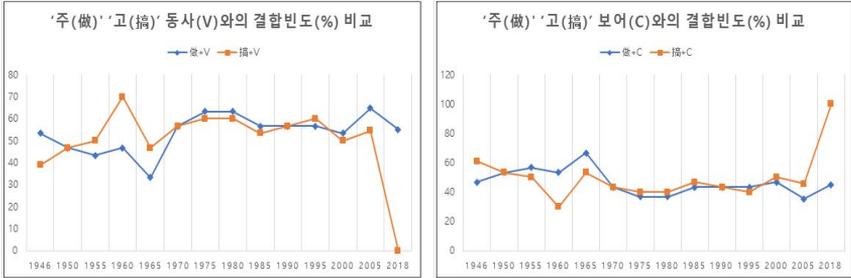
일반 동사에 비해, 형식동사는 구어체보다 서면어 색채가 짙고 정중하고 엄격한 어기를 지니는 특성을 지니므로, 본고에서는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사용된 연도별 사용량과 수반 성분과의 결합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표 1> ‘인민일보(人民日報)’ ‘주(做)+V’와 ‘고(搞)+V’의 역대 사용량 변천



첫째, ‘주(做)’와 ‘고(搞)’가 동사성 목적어(VP)를 수반하는 형식동사 기능은 1946년경 시작되어 196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1990년대 이후 점차 그 사용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표 2〉 ‘주(做)’·‘고(搞)’와 동사(V)목적어 및 보어(C) 결합빈도 비교⁴⁾



둘째, 특히 두 동사가 수반하는 동사 목적어와 보어와의 결합 빈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주(做)’는 꾸준히 보어보다 높은 빈도로 동사 목적어를 수반한 반면, ‘고(搞)’ 또한 높은 빈도로 동사구 목적어를 수반하다가 2005년 이후 동사 목적어 공기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보어와의 공기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⑤ a. 高新技术产业为GDP增速超过17%做出1/3的贡献。《人民日报》
(첨단기술 산업은 GDP성장률 17% 돌파에 3분의 1의 기여를 하였다.)
- b. 先把“现状是什么、问题有什么、村民想什么”等底数搞清楚。
(먼저 현황 및 문제, 농민들의 생각 등에 대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두 동사 사이에 분명한 의미·기능적 차이가 있으며, 문법화의 각도에서 실사 동사를 주로 수반하는 ‘주(做)’에 비하여 특히 주로 단음절 보어를 수반하는 ‘고(搞)’의 허사화, 문법화 정도가 더 강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현대 중국어의 ‘주(做)’와 ‘고(搞)’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사·의미·화용적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겠다.

4) 본고에서는 각 년도별 〈인민일보(人民日报)〉에 쓰인 ‘주(做)’와 ‘고(搞)’의 상화 동사 목적어(V)와 보어(C) 가운데 각 30개 예시를 선별해 통계를 진행하였다.

Ⅳ. 현대 중국어 ‘주(做)’와 ‘고(搞)’의 의미·기능 비교

1. 做와 搞의 통사 형식 비교

형식 동사는 통사 구조의 제약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BCC 코퍼스를 대상으로, 먼저 ‘주(做)’와 ‘고(搞)’가 공기하는 목적어와 보어 성분, 연어 및 구문 형식 등 통사 형태적 차이를 살펴보겠다. ‘주(做)’, ‘고(搞)’와 자주 결합하는 목적어 동사구(VP), 명사구(NP) 및 보어(C)는 다음과 같았다.

〈표 3〉 ‘주(做)’·‘고(搞)’와 공기하는 상용 동사성(VP) 목적어

		주(做)		고(搞)
동사 [V]	1 음절	嫁, 响, 生, 撒, 保, 答, 流, 种, 画, 托, 像, 签, 操, 捏, 受, 弄, 擦, 怕	1 음절	空, 灭, 走, 拉, 伐, 怕, 吐, 穷, 饿, 弄, 玩, 崩, 废, 刨, 赢, 扰 등
	2 음절	教育, 贡献, 礼拜, 服务, 斗争, 打算, 如下, 练习, 记录, 敢当, 兼职, 设计, 奉献, 出让, 铺垫, 研究, 调查, 对照, 介绍, 计划, 掩护, 销售, 主持, 总结, 支撑, 处理, 试验, 治疗, 绝育, 美容, 代理, 体检, 保养, 合一, 阅读, 评价, 祈祷, 判断, 指导, 安排, 推广, 停留, 赔本, 检讨, 值得, 执行, 翻译, 分析, 处理, 策划, 评论, 交流, 尝试, 统计, 交换, 修改, 投资, 检查, 料理, 采访, 改变, 报告, 动员, 演讲, 诊断, 结婚, 牺牲, 装修, 改革, 规划, 读书, 笔记, 回复, 卧底, 了解, 交流, 考察, 完善, 交谈, 努力, 协商, 培训, 解决, 保证, 开发, 加工, 补偿, 劳工, 咨询, 广告,	2 음절	卫生, 活动, 创收, 建设, 生产, 科研, 运输, 分裂, 成功, 强迫, 学习, 积肥, 承包, 研究, 推销, 摊派, 创作, 特殊, 运动, 设置, 迷信, 摄影, 改革, 迷糊, 开发, 设计, 宣传, 单干, 选举, 争论, 浮夸, 回来, 变通, 聚会, 绿化, 养猪, 联合, 传销, 联营, 合资, 经营, 调研, 接待, 发明, 攀比, 种植, 买卖, 崩溃, 革新, 调查, 旅游, 技改, 统计, 促销, 创新, 突破, 试验, 集资, 套种, 销售, 调整, 赌博, 颠倒, 引进, 养殖, 贪污, 欺骗, 发展, 推广, 土改, 失踪, 端正, 创造, 变相, 造林, 服务, 投资, 颠覆, 走私, 宴请, 策划, 围垦, 发行, 加工, 竞争, 竞赛, 到底, 投资, 评比, 挖潜,

		주(做)	고(搞)
동사 [V]	2 음절	保障, 按摩, 考虑, 值日, 失败, 雾化, 报道, 祷告, 休息, 运动, 报告, 分享, 理疗, 回答, 对比, 回忆, 处理, 护理, 参考, 教练, 锻炼, 装饰, 编辑, 补偿, 流产, 化疗, 到头, 抵押, 反弹, 访问, 推销, 定夺, 代购, 点缀, 整理, 证明, 测试, 参照, 计算, 检验, 投资, 承诺, 要求, 预防, 考勤, 沟通, 孝顺, 环保, 签名, 登记, 切除, 补充, 配合, 支持, 解答, 压倒, 讨论, 恋爱, 呼吸, 接待, 引导, 解答, (下)结论, 造型, 出口, 阐述, 执政, 掩饰, 活检, 守法, 链接, 拒绝, 促销, 计划, 规定 등	2 음절 收藏, 垄断, 回复, 下台, 贩运, 暗杀, 照顾, 诬告, 混淆, 总结, 独立, 平调, 平衡, 投机, 穿越, 复辟, 翻译, 整顿, 改良, 演出, 出版, 翻案 등
	2 음절	다 음절 一刀切, 特殊化, 同性恋, 机械化, 私有化, 单打一, 多元化, 神秘化, 反腐败, 简单化, 信息化, 扩大化, 合作化, 产业化, 基地化, 大扫除, 大众化, 复杂化, 自动化, 走过场, 政治化, 社会化, 形式化, 深加工, 一体化, 数字化, 正规化, 自由化, 河网化, 现代化, 国有化, 水利化, 集体化, 一般化, 专业化, 国际化, 标准化, 系列化, 核试验, 调查研究, 强迫命令, 发明创造, 生产经营, 虚报浮夸, 监督管理, 团结合作, 生态建设, 协调配合, 价格欺诈, 地区封锁, 水产养殖, 配套建设, 등	

〈표 4〉 ‘주(做)’·‘고(搞)’와 공기하는 상용 명사성(NP) 목적어

		주(做)	고(搞)
명사 [N]	1 음절	人, 家, 戏, 面, 贼, 手, 牛, 马, 梦, 噶, 鸡, 眼, 狗, 市, 药, 汤, 娘, 鞋	1 음절 乜, 人, 事, 钱, 野, 饭, 屎, 㗎, 屁, 噶, 局, 店, 摺, 车, 票, 酒 등
	2 음절	父母, 功课, 男人, 恶梦, 活动, 游戏, 父亲, 头发, 决议, 表面, 运动, 贸易, 手脚, 学生, 群众, 动作, 行为, 早餐, 善事, 蛋糕, 妈妈, 实事, 指甲, 人民, 妻子, 老婆, 丈夫, 老师, 笔记, 大事, 数学, 报告, 预报, 措施, 头像, 节目, 企业, 皇帝, 爸爸, 奴隶,	2 음절 运动, 建筑, 地方, 形式, 农田, 特权, 企业, 科技, 工业, 基础, 文学, 粮食, 工程, 毛线, 男女, 基建, 音乐, 水利, 文艺, 阴谋, 体育, 文化, 城市, 外遇, 规划, 市场, 学术, 头发, 煤炭, 专业, 行政, 卫生, 产品, 流量, 庆典, 足球, 军事, 气氛, 项目, 新闻,

		주(做)	고(搞)	
명사 [N]	2 음절	老板, 伴娘, 桌面, 晚饭, 公益, 主人, 表率, 医生, 手工, 动作, 样子, 后盾, 音乐, 儿子, 家长, 早饭, 教师, 产品, 政治, 领导, 兄弟, 女儿, 视频, 市场, 早操, 基础, 苦力, 赌注, 演员, 情人, 技术, 哥哥, 礼物, 记者, 新娘, 品牌, 孩子, 姐妹, 中学, 夫妻, 项目, 赌注, 面包, 苦工, 弥撒, 决策, 背景, 服装, 东西, 新闻, 股票, 胃镜, 媳妇, 模特, 业务, 坏人, 体操, 笔录, 榜样, 导演, 晚餐, 老公, 保姆, 家具, 英雄, 姐姐, 个人, 原料, 律师, 事业, 宵夜, 任务, 编辑, 妹妹, 明星, 物理, 计划, 嘉宾, 题目, 常规, 主角, 司机, 文化, 人质, 学术	2 음절 다 음절	商业, 木材, 生意, 电影, 业务, 文字, 福利, 暗箱, 民兵, 尿棍, 法制, 服装, 团购, 学问, 家务, 政绩, 宗派, 公关, 噱头, 晚会, 派性, 数学, 美术, 网恋, 笑剧, 理论 花架子, 股份制, 终身制, 恶作剧, 试验田, 开发区, 瞎指挥, 计算机, 婚外恋, 小圈子, 原子弹, 深加工, 精加工, 模仿秀, 责任制, 车子化, 婚外情, 电视剧, 个体户, 养殖业, 资本主义, 两极分化, 宏观调控, 行业垄断, 形式主义, 综合利用, 计划生育, 权钱交易, 形象工程, 修正主义, 企业经营, 春耕生产, 生态建设, 环境保护, 税费改革, 集体活动, 思想建设, 精神文明, 土地开发, 平均主义, 资产阶级, 环境卫生, 市场经济, 霸权主义, 市场竞争, 计划经济, 体制改革, 商品生产, 安全生产, 组织协调, 劳务输出, 粮食生产, 第二职业, 技术引进, 就业服务, 团团伙伙, 不正之风, 艺术创作, 白色恐怖, 人造卫星, 包产到户, 马克思主义, 四个现代化, 房地产开发, 开发性生产, 基础设施建设, 精神文明建设 등
	다 음절	白日梦, 俯卧撑, 亏心事, 一个人, 深呼吸, 志愿者, 第三者, 心电图, 第一个, 临时工, 男朋友, 老实人, 主持人, 班主任, 女朋友, 挡箭牌, 小买卖, 第二次, 公务员, 小动作, 女强人, 工程师, 选择题, 准备活动, 准备工作, 心理咨询, 访问学者 등		

코퍼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做)’와 ‘고(搞)’ 모두 명사성 목적어(NP)와 상당한 비중의 동사성 목적어(VP)를 갖는 것을 보았고, 이는 즉 양자 모두 전형적인 형식 동사임을 보여준다.⁵⁾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두

5) 두 동사 ‘주(做)’와 ‘고(搞)’가 명사 목적어와 동사 목적어를 지닐 때 의미 기능이 달라지므로, 본고에서는 박덕준(1999)과 마찬가지로 전자를 다른 동사

동사의 후행 성분이 다음의 특징 및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두드러진 차이는 ‘주(做)’와 ‘고(搞)’ 후행 목적어의 음절 수이다. 두 동사의 후행 목적어 음절수는 각각 다음의 빈도로 사용되었다.

〈표 5〉 ‘주(做)’와 ‘고(搞)’의 상용 동사성 목적어 음절 수 차이



〈표 6〉 ‘주(做)’와 ‘고(搞)’의 상용 명사성 목적어 음절 수 차이



‘주(做)’가 수반하는 동사구(VP)와 명사구(NP) 목적어는 모두 2음절 성분이 각각 92.8%와 71.7%로 주를 이루고 나머지 동사성 목적어는 대부분 1음절인데 반해, 명사성 목적어는 1음절과 3음절 이상이 각각 16.2%와 12.1%로 사용되었다. 반면, ‘고(搞)’의 동사 목적어는 2음절과 3음절 이상 성분이 66.1%와 2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명사 목적어는 2음절과 3음절 이상 다음절 성분이 각각 44.4%와 48.5%로 후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

의미를 대체하는 ‘대동사’, 후자를 완전히 허화된 의미의 ‘형식동사’로 간주한다. 하지만, 편의상 본문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형식동사’라 하였다.

하였다. 특히, ‘고(搞)’가 수반하는 1음절 동사의 경우 대부분 보어 기능을 하여 [搞+V(C)]형식으로 사용되었다.

‘주(做)’와 ‘고(搞)’의 이러한 목적어 음절상의 차이는 현대 중국어의의 2음절화, 4음절화(four syllabic structure) 추세⁶⁾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중국어에서 어음의 2음절화 현상은 언어를 더욱 정결하고 조화롭게 하고, 리듬감과 균형감이 있어 언어의 표현 효과를 강화시킨다. 중국어는 표의문자로 제한된 한자로 뜻을 나타내던 언어에서, 근대화 이후 더 넓은 지역에서 상호 교류가 확대되면서 2음절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실제 형식동사의 변천을 보면, 2음절 형식동사가 1음절 형식동사보다 늦게 출현하여 더욱 활발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⁷⁾

이러한 흐름을 통해, ‘주(做)’보다 늦게 출현한 ‘고(搞)’의 형식동사 기능이 더욱 활발히 발전하고, 1음절 동사 보어나 3음절 이상 다음절과 결합하여 ‘2음절’ 형식 혹은 ‘4음절’ 형식을 취하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코퍼스에서, ‘주(做)’는 1음절이나 2음절 동사와 주로 결합하는 반면, ‘고(搞)’는 1음절 동사나 2, 3음절 이상 다음절 동사와 주로 결합하였는데, 2음절 동사도 뒤에 다른 동사 혹은 명사와 결합하여 복합형식으로 쓰였다.

- | | | |
|-----------|-------|-------------|
| ⑥ a. 搞单打一 | *做单打一 | (한 쪽만 고집하다) |
| b. 搞标准化 | *做标准化 | (표준화하다) |

6) 蒋铭(2013:51)은 ‘형식동사는 중국어 음절의 운부를 변화시켜 언어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4자 술어를 형성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형식동사는 ‘从事, 进行, 给予, 加以’처럼 2음절이며, 음성 부분 구성을 위해 2음절 동사를 수반한다. 이러한 4음절 구조는 현대 중국어 운부의 추세이다. 음절의 결합은 언어의 조화와 일치를 보여주며, 음성을 더욱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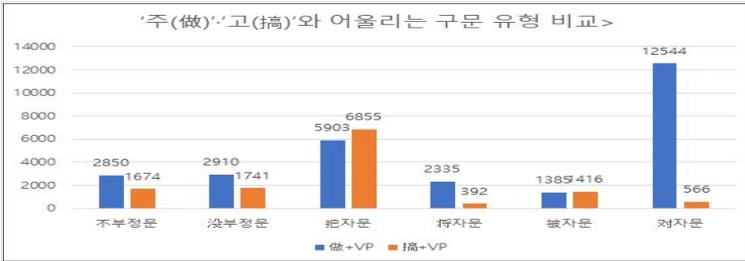
7) 袁杰、夏允贻(1984:31~32)에 따르면, 중국어 허의동사(虚义动词)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 《论语》와 2세기 《史记》에 출현한 ‘行’과 이후 《汉书》 등에 출현한 ‘加’에서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뒤에 단음절 동사를 수반하다가 진(秦)나라 이후 점차 2음절 동사를 수반하였다. 반면, 2음절 허의동사는 비교적 늦게 출현하였는데, 최초의 사용은 清嘉庆二十三年(1818年)의 《钦定大清会典事例》에 출현한 ‘给予’ ‘予以’이며, 1음절+1음절 형식(严行, 严加, 不加)도 많이 발견되었고, 5·4운동 이후 각종 사무체 문장에 더욱 활발히 사용되었다.

- c. 搞杜绝腐败 *做杜绝腐败 (부패를 근절하다)
- d. 搞水产养殖 *做水产养殖 (수산양식을 하다)
- e. 搞基础设施建设 *做基础设施建设 (기초 인프라 건설을 하다)
- ⑦ a. 搞封闭(폐쇄하다): 搞封闭式教育(폐쇄식 교육을 하다),
搞封闭型管理(폐쇄형 관리를 하다),
搞封闭式经济体系(폐쇄식 경제체제를 시행하다)
- b. 搞配套(조립하다): 搞配套工程(조립 공정을 하다),
大搞配套成龙(완전한 시스템을 만들다),
搞配套服务(일체형 서비스를 하다),
搞配套设施(세트 설비를 하다)
- c. 搞投机(투기하다): 搞投机买卖(투기 매매를 하다),
搞投机倒把(투기 거래를 하다),
大搞投机倒把活动(대규모 투기 거래를 하다)

둘째, ‘주(做)’와 ‘고(搞)’가 공기하는 부사, 전치사 및 구문 유형의 차이이다. 두 동사 모두 부정부사 ‘不’와 ‘沒’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두 동사가 자주 공기하는 전치사와 구문유형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 ⑧ a. 希望来年把传染病的防治工作做得更好。
(내년에는 전염병 방역업무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
- b. 有关方面对这些活动的安全防范做得非常周密。
(관련 부처에서 이번 활동의 안전 조치를 매우 세심하게 하였다.)
- c. 国际电台和一些报纸对此做了专题报道和评论。
(해외 방송국과 일부 신문사에서 이 문제를 특집 보도 및 평론하였다.)
- d. 这种心态不可能把自己和孩子的生活搞好。
(이런 마음가짐은 자신과 아이들의 생활이 잘 되게 할 수 없다.)
- e. 不管怎么说, 这一切把我的思想都给搞糊涂了。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내 사상을 매우 혼란하게 하였다.)
- f. 我便从因心情不好懒得收拾, 被我搞得像个猪窝似的床上爬起来。
(나는 우울한 마음에 청소를 못 해 돼지우리 같아진 침대에서 일어났다.)

〈표 7〉 ‘주(做)’·‘고(搞)’와 어울리는 구문 유형 비교



〈표 7〉에서 보듯이, 부정부사의 사용 비중은 ‘做’(1.6%)보다 ‘搞’(3.3%)가 더 높았다. 자주 결합하는 전치사 양상을 보면, 동작 대상의 처치를 나타내는 ‘把자문’(구어체)과 ‘将자문’(서면체)의 사용 빈도는 ‘搞’(6.6%, 0.4%)가 ‘做’(1.7%, 0.7%)보다 훨씬 높았고, 피동문인 ‘被자문’의 경우 ‘做’(0.4%)와 ‘搞’(1.4%) 모두 사용 빈도가 낮았다.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동작을 행하다’ 의미의 전치사 ‘对’가 쓰인 구문은 ‘做’(3.5%)의 사용빈도가 ‘搞’(0.5%)보다 훨씬 높았다. 이처럼, ‘주(做)’와 ‘고(搞)’가 주로 공기하는 부사, 전치사 및 구문 유형의 차이는 이들이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지님을 보여주며, 이러한 통사형식과 의미기능 차이의 상관성은 다음 소절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또한, 두 동사의 공기 부사 양상의 차이이다. 코퍼스 분석 결과, ‘주(做)’와 ‘고(搞)’가 자주 수반하는 부사 유형 또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표 8〉 ‘주(做)’·‘고(搞)’와 공기하는 부사의 결합빈도 비교

		[做]	[搞]			[做]	[搞]
정도부사	很	117	2065	满	5	31	
	好	2521	4774	够	85	102	
	真	591	1861	更	95	259	
	太	244	5394	十分	19	28	
	超	19	960	完全	85	140	

		[做]	[搞]		[做]	[搞]
정도부사	挺	8	326	彻底	85	140
	蛮	15	251	超级	8	326
	最	35	1102	非常	12	90
	巨	9	84	有点	127	451
양태부사	多	7586	1234	耐心	253	1
	少	817	226	积极	2142	333
	甘	463	227	有效	204	0
	懒	54	5	正确	141	4
	认真	5729	1220	简单	283	13
	确实	434	74	特意	136	6
	具体	2552	14	亲自	404	33
	详细	865	0	努力	6982	556
	高兴	97	2	虚伪	102	0
快乐	91	9	踏实	146	2	

- ⑨ a. 观察结束后, 要认真做好观察总结。
 (관찰이 끝난 후에 열심히 관찰 총결을 해야 한다.)
 b. 多到农民群众的家里看看, 真正做好脱贫很不容易。
 (농민 가정을 둘러보니, 진정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일은 매우 어렵다.)
 c. 是昨天心情很差, 睡前电视里的一部电影, 满搞笑的!
 (어제 기분이 저조해서 자기 전에 TV에서 본 영화가 정말 웃겼어!)
 d. 真搞不懂你们女人, 本来也不胖, 也挺好看的, 却天天嘴里喊着减肥。
 (여자들은 왜 똥똥하지도 않고 예쁜데 매일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사는 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부사의 결합 양상은 두 동사의 형식적 차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고(搞)’는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와 결합빈도가 높았고, 주로 1음절 부사와 결합하여 [부사+搞+VP]의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주(做)’는 화자의 방식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와의 결합빈도가 높았

으며, 주로 2음절 부사와 결합하여 [부사+做+VP]형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욱 두 동사에 내재된 의미 특성 차이의 통사적 발현으로 간주되므로, 두 동사의 의미·화용적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做)’와 ‘고(搞)’가 수반하는 보어 성분의 차이이다. 본고에서는 코퍼스에서 두 동사가 주로 수반하는 보어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표 9〉 ‘주(做)’·‘고(搞)’와 공기하는 상용 보어

	주(做)	고(搞)
결과보어	到, 完, 晒, 错, 完了, 回, 干净, 对, 掉, 尽, 死, 通, 翻, 惯, 透, 定, 开, 反, 完, 住, 伤, 返, 错, 结, 砸, 落, 道, 玩, 断, 闭, 疯, 腻, 哭, 细, 实, 优, 好, 亮, 守, 破, 垮 등	笑, 错, 到, 疯, 丢, 忘, 怪, 晕, 成, 清楚, 混, 定, 清, 明白, 掉, 懂, 破坏, 完, 昏, 破, 完了, 死, 通, 醒, 反, 对, 毁, 明确, 没, 伤, 塌, 透, 掂, 翻, 破, 倒, 没, 醉, 断, 哭, 撒, 超, 开, 坏, 落, 透, 返, 转, 住, 爆, 死, 瞎, 乱, 垮, 脏, 碎, 烦, 腻
가능보어	不到, 得到, 得出, (非)不可, 不得, 得了, 不会, 得好, 不好	不到, 不成, 得到, 不得, 不准, 不可, 得出, 不见, 不能, 得好, 不好 등
정도보어	做+得(형용사), 够, 满, 足 등	搞+得(형용사), 到底, 够, 快, 满 등
방향보어	出, 起, 出来, 起来, 回, 下去, 下, 去, 来, 下来, 上去, 起, 上来, 回来, 回去, 过去 등	出, 来, 起, 起来, 出来, 下去, 上去, 回, 去, 下来, 下, 上来, 进来, 过来, 回去, 出去, 进, 进去, 上 등

- ⑩ a. 做完“早操”，老人还要在10余米长的走廊慢慢来回走动5次。
(아침 체조를 한 후에 노인들은 10미터 길이 복도에서 천천히 5회 반복 걸기를 해야 한다.)
- b. 由于乡镇推广全民健身的条件比城市要差，不可能做到面面俱到。
(지방 도시는 전시민에게 건강운동을 보급할 여건이 도시에 비해 부족하여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 c. 我特意赶到太原，与他彻夜长谈，才把工作做通。
(내가 직접 타이위엔에 가서 그와 밤샘 협상을 통해 비로소 일을 성

사시켰다.)

- d. 开始他以为自己搞错了, 因为当时人们一直人为恒星数目是不变的。
(처음에 그는 당시 사람들이 행성의 수가 불변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고 여겼다.)
- e. 〈报告〉要重写, 可以再搞细一点, 让它在理论上要说得通。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논리에 맞도록 더 상세히 재작성 하세요.)
- f. 这使我们脱离群众, 脱离干部, 把风气搞坏了。
(이로 인해 우리는 대중과 간부로부터 멀어져 기풍을 모두 망가뜨렸다.)

두 동사 모두 특히 1음절 동사나 형용사 결과보어를 수반하여 [做/搞+보어(C)]형식으로 쓰인 용례가 많았는데, ‘做’보다 ‘搞’가 훨씬 다양한 결과보어를 수반하였다. 이는 아마도 ‘搞’가 갖는 사역 의미로 인해 ‘주(做)’보다 처치 의미의 ‘把’자 구문이나 ‘得+정도보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형식과 의미 사이의 연계성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겠다.

2. ‘做’와 ‘搞’의 의미·화용 비교

‘주(做)’와 ‘고(搞)’는 동일한 ‘하다’ 의미를 지니지만 공기하는 목적어나 보어 및 구문형식 등 통사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동일한 형식에서 단순히 통사적 특징으로 이들을 구별하기 어렵고, 또한 앞선 분석을 통해 두 동사의 통사적 구별이 의미적 차이의 구조적 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의미·화용적 관점에서 두 동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Hopper&Thompson(1984)은 어휘 등급 범주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며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변화하는 현상은 하나의 동적인 과정이라 하였다. Liu Zhengguang(2005)은 인지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인지 구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고, 본래 언어의 일부 어휘 의미를 바꾸어 새로운 범주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범주 구성원들이 본래 자질을 잃는데, 이러한 과정을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통사적으로는 통사적인 자질이 사라지고, 의미적으로는 추상화와 일반화 된다. 또한 담화와 정보 조직에서 어휘의 기능은 확장되고 이동되며, 범주적 속성에서 범주 구성원은 상위범주에서 하위범주로 이동하거나 교체된다. 인지언어학에 따르면, 범주화와 비범주화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그 과정은 역동적이고 무한하며 순환적이다.⁸⁾

탈범주화 이론을 토대로, 형식동사는 본래의 동사적 자질을 잃고 형식동사로 범주 이동하는 한편, 기능적으로는 더 약화되고(weakened) 확장되거나(amplified) 이동하고(shifted), 의미적으로는 더 추상적(abstract)이고 일반화(general)된다. 본고에서는 코퍼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做)’와 ‘고(搞)’가 의미·화용적으로 크게 다음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첫째, 동일한 통사 형식의 ‘주(做)’와 ‘고(搞)’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동일한 목적어 성분을 수반하는 [做/搞+NP/VP] 표현이나 두 동사가 상호 교체될 수 없는 예문들을 통해 드러난다. 4.1절의 코퍼스 분석 결과, ‘주(做)’와 ‘고(搞)’가 공기하는 동사성 목적어(VP) 333개와 327개 가운데 중복 사용되는 목적어는 단지 51개⁹⁾로 약 15.5%에 지나지 않았고, 상용 명사성 목적어(NP)는 각각 297개와 229개 가운데 30개(약 12%)¹⁰⁾만이 중복 사용 가능하였으며, 동일한 통사 형식 가운데에도 내재적인 의미상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8) 蒋铭, 《现代汉语虚义动词非范畴化现象与表现形式》, 长沙理工大学硕士学位论文, 2013, 9-10쪽.

9) ‘주(做)’와 ‘고(搞)’가 모두 수반하는 동사성 목적어(51개): 销售, 制造, 调研, 生产, 采购, 加工, 教育, 安装, 恋爱, 促销, 改革, 开发, 创新, 出版, 调整, 摄影, 推销, 接待, 招聘, 试验, 统计, 创作, 运动, 检验, 服务, 控制, 回复, 搬运, 报道, 怕, 搭配, 预防, 设计, 评论, 培训, 协调, 收藏, 调查, 推广, 总结, 清理, 斗争, 研究, 传销, 投资, 翻译, 演出, 策划, 评价, 弄, 计划

10) ‘주(做)’와 ‘고(搞)’가 모두 수반하는 명사성 목적어(30개): 学术, 人, 新闻, 历史, 汽车, 飞机, 电影, 动作, 头发, 音乐, 文艺, 专业, 文化, 运动, 产品, 业务, 酒, 项目, 车, 建筑, 工程, 市场, 噶, 企业, 事业, 翻译, 数学, 服装, 基础, 商业

① A. [做+VP]	B. [搞+VP]
a. 做研究	搞研究
做创作	搞创作
做翻译	搞翻译
做卫生	搞卫生
搞策划	搞策划
b. 做笑 억지로 웃다	搞笑 웃기다
做错 잘못하다, 실수하다	搞错 잘못 알다, 오해하다
做惯 익숙해지다	*搞惯
*做失踪	搞失踪 실종되다

우선, ‘주(做)’와 ‘고(搞)’의 두드러진 의미 차이는 두 동사의 의미 중점과 구체적인 의미 차이이다. 刁晏斌(2004)은 두 문장 “这件事难道是我做错了吗?”와 “这件事难道是我搞错了吗?”에서 ‘做’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의미상 목적어는 ‘事’이며 의미 중점이 ‘做’에 있는 반면, ‘搞’는 실질적 의미가 없고 의미상 주어도 ‘事’가 아니며 의미 중점이 ‘错’에 있다고 하였다. 즉, ‘주(做)’가 ‘고(搞)’보다 더 실제적 의미를 지니며 ‘고(搞)’의 의미가 더 허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목적어를 수반할 때 ‘주(做)’와 ‘고(搞)’의 구체적인 의미가 다소 다르다. 예문(11)의 ‘a’ 그룹처럼, ‘做研究’의 ‘做’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행하다’의 의미를 지니 ‘연구를 하다’로 해석되는 반면, ‘搞研究’의 ‘搞’는 또한 ‘어떠한 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다’의 의미를 지니 ‘연구 분야에 종사한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做翻译’와 ‘搞翻译’도 마찬가지로 각각 ‘번역하다/통역하다’와 ‘번역/통역업에 종사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예문 ‘b’ 그룹처럼 동일한 동사를 수반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거나 교차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처럼, 두 동사가 수반하는 목적어의 유형 차이가 이들의 의미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특히 명사성 목적어를 수반할 때 두드러지는데, 두 동사가 수반하는 명사성 목적어의 의미유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표 10〉 ‘주(做)’·‘고(搞)’의 명사 목적어(NP) 의미유형 비교

유형 분류	做(%)	搞(%)
신분, 관계	68개(22.9%)	3개(1.3%)
업종, 분야	37개(12.5%)	70개(30.6%)
보통명사	193개(65%)	156개(68.1%)
계	298	229

‘주(做)’는 보통 명사를 제외하고 다량의 신분,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반면, ‘고(搞)’는 업종, 분야를 나타내는 명사와의 결합 빈도가 높고 신분, 관계의 목적어는 단지 3개(人, 男女, 民兵)에 지나지 않았으며,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¹¹⁾ 그러므로, ‘주(做)’와 ‘고(搞)’의 명사 목적어는 각각 [+신분][+관계][+업종]과 [-신분] [-관계][+업종]의 자질을 가지며, 그로 인해 전자는 ‘하다’ ‘되다, 말다’와 ‘종사하다’의 의미를 모두 지니는 반면, 후자는 ‘하다’와 ‘종사하다’의 의미만을 지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做’ 뒤에 수반되는 ‘学生, 夫妻, 哥哥, 律师, 家长, 代表, 丈夫, 妻子, 主人, 兄弟, 伴郎, 记者, 姐姐, 司机, 手工, 妹妹, 皇帝, 观众, 姐妹, 保姆, 老公, 秘书, 伴娘’ 등의 명사들은 ‘搞’ 뒤에 올 수 없으며, ‘音乐, 电影, 政治, 经济, 建设, 外交, 艺术, 体育, 摄影, 法律, 广告, 美术, 食品, 文学, 科技, 学术’ 등 업종이나 분야를 나타내는 명사 목적어들은 ‘搞’와 결합하면 주로 ‘(업종/분야에)종사하다’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做’와 결합하면 ‘만들다’ ‘하다’ 혹은 ‘종사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주(做)’와 ‘고(搞)’의 결합 성분의 차이이다. 즉, 두 동사의 통사형식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 상호 교체될 수 없는 경우이다. 크게 다음의 몇 가지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

11) ‘搞人’, ‘搞男女’, ‘搞民兵’은 각각 ‘희롱하다, 놀래키다’, ‘남녀를 놀리다’, ‘민병을 부리다’ 등의 의미로 여기에서 ‘搞’는 ‘희롱하다, 놀리다, 부리다’ 등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후행 성분의 [+중·긍정][+부정] 의미 자질 차이이다. 두 동사가 수반하는 동사성 목적어[VP], 명사성 목적어[NP]의 코퍼스 분석 결과, 두 동사가 결합하는 의미 자질은 다음의 차이가 있었다.

〈표 11〉 ‘주(做)’·‘고(搞)’ 목적어 성분의 [+긍정] [+부정] 의미 자질 비교

분류	做+VP	搞+VP	做+NP	搞+NP
중·긍정	321(96.4%)	268(81.95%)	278(93.6%)	198(86.5%)
부정	12(3.6%)	59(18.04%)	19(6.4%)	31(13.5%)
계	333	327	297	229

동사 목적어(VP)의 경우, ‘주(做)’는 대부분 [+중·긍정] 의미 목적어와 소수(3.6%)의 [+부정]의미 목적어를 수반하는 반면, ‘고(搞)’ 또한 상당수 [+중·긍정]의미 목적어와 일정 빈도(18%)의 [+부정]의미 목적어를 수반하였고, 명사 목적어(NP)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고(搞)’가 수반하는 ‘伐, 怕, 吐, 穷, 饿, 灭, 崩, 废, 扰, 诬告, 变相, 动乱, 破产, 欺骗, 垄断, 贪污, 体罚, 迷信, 浮夸, 逼供, 敲诈, 应付, 歧视, 颠覆, 复辟, 失眠, 内讧, 偷袭, 批评, 贿赂, 策划, 自杀, 走私, 强制, 武斗, 批斗, 欺诈, 强迫, 颠倒, 停电, 迷糊, 崩溃, 失踪, 暗杀, 分裂, 罢工, 赌博, 下台, 对立, 走过场, 价格欺诈, 行业垄断, 贪污腐败’ 등 [+부정] 자질 동사 목적어는 ‘주(做)’와 결합하지 않았으나, ‘주(做)’와 결합하는 소수의 ‘부정’의미 목적어들(怕, 惹, 赔本, 策划, 掩饰, 浪费, 纠缠, 杀人, 反抗, 放弃, 拒绝, 出错)은 대부분 ‘고(搞)’와도 결합하였다.

이를 통해, ‘주(做)’와 ‘고(搞)’는 각각 [+중·긍정]과 [+부정]의 의미 자질과 더 어울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동사가 수반하는 보어 성분의 의미적 차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표 12〉 ‘주(做)·고(搞)’ 보어 성분의 [+긍정] [+부정] 의미 자질 비교



보어의 경우, ‘주(做)’와 부정의미 보어의 결합도도 상당히 높은 빈도(37.5%)를 보였으나, ‘고(搞)’와 부정의미 보어의 결합빈도는 과반 이상(55.2%)을 차지하므로, 특히 ‘고(搞)’와 [+부정]의미 자질 보어의 긴밀한 결합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동사와 모두 결합하는 25개¹²⁾ 보어 가운데 ‘做’와 결합하는 부정 의미 보어는 대부분 ‘搞’와도 결합하였다.

결과 보어의 경우, ‘고(搞)’는 1음절 동사성 결과보어와 결합한 [搞+보어] 형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인지] 의미 자질의 ‘懂(이해하다)’ ‘醒(깨우치다)’ ‘掂(헤아리다)’ ‘明确(명확하다)’ ‘清楚(분명하다)’ ‘明白(분명하다)’ 등의 보어와 함께 술보구조를 이루었으나, ‘주(做)’는 인지성 동사를 보어로 취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고(搞)’는 사역 의미를 갖는 반면 ‘주(做)’는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주(做)’는 주로 어떠한 동작 행위의 완성을 나타내는 ‘好’ ‘完’ ‘成’ ‘到’ 등의 [+완성] 의미의 결과보어나 동작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细’ ‘实’ ‘优’ ‘亮’ ‘干净’ 등 [+상태] 자질의 결과보어를 수반하였다.

⑫ a. ‘做’가 주로 수반하는 보어의 의미 자질

[-인지]: *做清楚 *做懂 ?做明白 *做醒 *做掂

[+완성]: 做到 做完 做好 做定 做住

[+결과] [+상태] [+중·긍정]:

做对 做细 做实 做优 做亮 做干净 做惯 做结

12) ‘주(做)’ ‘고(搞)’ 모두 결합하는 보어: 完(了), 哭, 透, 腻, 落, 掉, 翻, 破, 返, 到, 开, 通, 死, 反, 疯, 断, 垮, 住, 亮, 干净, 错, 完, 对, 伤 등

b. ‘搞’가 주로 수반하는 보어의 의미 자질

[+인지]: 搞清楚 搞懂 搞明白 搞醒 搞掂

[+완성]: 搞到 搞完 搞成 搞定 搞住

[+결과] [+상태] [+부정]: 搞错, 搞疯, 搞丢, 搞忘, 搞怪, 搞晕, 搞混,
搞掉, 搞昏, 搞破, 搞死, 搞反, 搞毁, 搞伤, 搞塌, 搞翻, 搞破, 搞倒,
搞醉, 搞断, 搞哭, 搞坏, 搞落, 搞爆, 搞死, 搞瞎, 搞乱, 搞垮, 搞脏,
搞烂, 搞废 등

두 동사가 수반하는 가능보어의 용례에서도 [+긍정] [+부정] 의미 자질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做)’는 ‘做得到’ ‘做得了’ ‘做得好’ ‘做得起’ 등 [+긍정]의미 가능보어의 사용 용례가 높은 반면, ‘고(搞)’는 ‘搞不好’ ‘搞不清楚’ ‘高不懂’ ‘搞不明白’ ‘搞不了’ 등 [+부정]의미 용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정도보어 ‘得’를 수반할 때 ‘주(做)’는 주로 ‘做得很好’ ‘做得干净’ ‘做得不错’ 등 [+중·긍정] 형용사와 결합하는 반면, ‘고(搞)’는 [+부정] 자질의 형용사나 구어 색채가 강한 관용어구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⑬ a. 其中龙以汉武帝时的农业推广工作做得出色。

(그 중 한무제 시대 농업 보급 사업은 매우 훌륭했다.)

b. 广东的定点检测等工作做得非常好。

(광둥의 거점 테스트 등 업무가 아주 잘 진행되었다.)

c. 上海的产权交易市场在这方面做得不错。

(상하이 저작권 거래 시장은 이 분야에서 우수하다.)

d. 他所画出的作品, 有一张也卖不出去, 搞得三餐老是没有着落。

(그가 그린 작품이 한 장도 팔리지 않아 세 끼를 먹을 돈이 없었다.)

e. 我的生活被搞得一团糟。 (내 생활이 모두 엉망이 되었다.)

f. 世界的经济搞得乱七八糟。 (세계 경제가 매우 혼란해졌다.)

g. 他又实行严刑苛法, 搞得民不聊生, 危机四伏。

(그가 또 가혹한 형벌을 시행하여 민생이 파탄하고 위기가 만연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4.1절에서 두 동사가 결합하는 부사의 차이가 있음을 보았는데, 즉 ‘주(做)’는 주로 2음절 ‘양태부사’와 결합하는 반면 ‘고(搞)’는 주로 1음절 ‘정도부사’와 결합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 동사 사이에 동태적·정태적 의미 차이 및 결합하는 동사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코퍼스 분석을 토대로, 실제 두 동사가 공기하는 동사성 목적어[VP] 의미 자질에 다음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주(做)’·‘고(搞)’ 동사성 목적어의 [±의지] 의미 자질 비교

동사 분류	[做+VP](%)	[搞+VP](%)
[+의지]	317(94.3%)	241(81.95%)
[-의지]	19(5.7%)	87(26.6%)
계	336	327

- ⑭ a. 在毛主席旧居陈列馆里, 佐法尔战士们细心参观, 认真做记录。
 《人民日报》
 (마오 주석의 생가 진열관에서 도파르 전사들은 세심히 참관하고 열심히 기록하였다.)
- b. 此外, 他们还在积极做准备, 拟按商品属性和产品质量对出口生产企业实行分类管理。《人民日报》
 (또한, 그들은 제품의 속성과 품질에 따라 수출 생산 기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c. 教师一定要耐心细致地将要求讲清楚, 亲自做示范。《人民日报》
 (선생님은 세심하고 인내심 있게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직접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 d. 突然朋友发了照片出来, 看了觉得真搞笑。《微博》
 (갑자기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정말 웃겼다.)
- e. 当他完全搞懂魔法师的意思后, 脸色完全暗了下来。《龙与地下城》
 (마법사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후 그의 얼굴색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 f. 严格说来水瓶女生是不太搞报复的, 因为缘起缘灭本来就很正常。
 (엄밀히 말해 물병자리 여자는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타입이라 잘 보복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做)’는 ‘認真(열심히)’, ‘積極(적극적으로)’, ‘親自(직접)’ 등 화자의 태도나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부사와 ‘記錄(기록하다)’ ‘準備(준비하다)’ ‘示范(시범을 보이다)’ 등 구체적 행위를 나타내는 [+의지] [+동작]의 미 동사와 결합한 반면, ‘고(搞)’는 ‘真(정말로)’ ‘完全(완전히)’ ‘不太(별로)’ 등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고 ‘笑(웃다)’ ‘懂(알다)’ ‘報復(보복하다)’ 등 비의지적이고 추상적인 [-의지][+추상] 자질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³⁾ 그러나, ‘주(做)’와 ‘고(搞)’는 각각 정도부사와 양태부사의 수식을 거의 받지 못 하므로 상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做)’는 대부분 [+의지]의미 자질 동사와 결합하는 반면, ‘고(搞)’는 [+의지]동사 외에도 높은 빈도로 [-의지]동사와 결합하였다. 코퍼스 용례에서, ‘주(做)’는 주로 ‘工作, 研究, 观察, 试验, 判断, 评论, 分析, 决定, 结论, 回复, 解答, 总结, 规定, 计划’ 등 의지적 동사 목적어를 수반한 반면, ‘고(搞)’는 의지적 동사 외에도 상당수 ‘不准, 轮回, 绿化, 攀比, 卫生, 消失, 感冒, 流通, 得手, 变相, 动乱, 破产, 颠覆, 复辟, 失眠, 颠倒, 停电, 迷糊, 崩溃, 失踪, 分裂, 下台, 国有化, 私有化, 简单化, 绝对化, 自动化, 信息化, 神秘化, 专业化, 合作化, 民族化, 一般化, 单打一, 多元化, 网络化, 公社化, 扩大化, 规模化, 数字化’ 등 비의지적 동사 목적어를 수반하였다. 이를 통해, ‘주(做)’는 주로 [+의지] [+동작] [+구체] 의미 자질과 결합하는 반면, ‘고(搞)’는 [+동작][+구체] 외에도 [-의지] [+상태][+추상] 자질과 긴밀히 결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동사가 왜 서로 다른 부사 및 서로 다른 구문 유형과 더 긴밀히 결합하는 지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 밖에도, 목적어의 차이에 따라 두 동사의 대응 의미도 달라졌다.

13) ‘고(搞)’가 수반하는 동사 목적어의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박덕준(1999)은 높은 지적수준과 사유 활동을 요구하는 활동 동사들이라 하였고, 조은경(2003) 또한 ‘고(搞)’ 행위가 일어나지 전 많은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빈어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⑮ a.	做煮	*搞煮	(삶다)
b.	做胃镜	*搞胃镜	(위 내시경을 하다)
c.	做声	*搞声	(소리를 내다, 말하다)
d.	做家	*搞家	(살림을 하다)
e.	做借口	*搞借口	(변명을 하다)
f.	做鱼	*搞鱼	(생선요리를 하다)
g.	做恶梦	*搞恶梦	(악몽을 꾸다)
⑯ a.	搞吐	*做吐	(토하다)
b.	搞呆	*做呆	(멍때리다)
c.	搞屁	*做屁??	(방귀를 끼다)
d.	搞晚会	*做晚会?	(디너쇼를 하다)
e.	搞网恋	*做网恋	(사이버 연애를 하다)
f.	搞小圈子	*做小圈子	(소그룹을 만들다)
g.	搞题库	*做题库	(문제은행을 만들다)

셋째, 두 동사의 의미 차이가 상용 구문 형식 및 고정언어 차이로 나타난다. ‘做’는 주로 중성적이고 객관적 의미의 서술문에 많이 사용되는 반면, ‘搞’는 부정적 의미의 구문이나 사역성 의미의 ‘把’자문에 많이 사용되므로, 훨씬 다양한 결과보어를 수반하였다.

- ⑰ a. 这种交往将会日益发展, 对促进和平统一做出贡献。《人民日报》
(이러한 교류는 점차 확대되어 평화 통일의 발전에 공헌할 것이다.)
- b. 不要轻易对孩子的行为做出评价、发指令, 要尽量引导孩子去思考。
(아이의 행동에 쉽게 평가하고 명령하지 말고, 최대한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 c. 责任就是把不喜欢的事做到最好。
(책임이란 하기 싫은 일을 최고로 해내는 것이다.)
- d. 我这个烂记性, 迟早要把各人也搞忘!
(이 몹쓸 기억력 때문에 언젠가 모든 사람을 잊어버리게 될거야!)
- e. 今天发神经把头发搞卷了。(오늘 신경질이 나서 머리를 묶었다.)
- f. 李缅发现自己人为地把事情给搞拧了。
(리멘은 자신이 일부러 일이 틀어지게 했음을 알았다.)

‘做’(17a, b, c)는 정문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술 어기로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후행 동작을 ‘행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搞’(17d, e, f)는 더욱 자연스러운 구어체 문장에서 대상에 행해진 동작의 결과에 의미 중점이 있어, 처치 의미가 강한 ‘把’자문에서 다양한 결과보여를 수반하는 용례가 많았으며, 이들 구문에서 두 동사는 서로 교체될 수 없다.

코퍼스 분석 결과, ‘주(做)’와 ‘고(搞)’의 상용 고정연어(固定搭配)는 다음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 상호 교체 가능한 예문은 거의 없었다.

〈표 14〉 ‘주(做)’와 ‘고(搞)’의 상용 고정연어(固定搭配)

고정 연어(固定搭配)	
주 (做)	做得(성취하다, 이루다), 做饭(밥을 짓다), 做眼(정담하다), 做客(방문하다), 做主(주관하다), 做戏(가장 하다), 做秀(쇼하다), 做寿(생신잔치를 하다), 做法(방법), 做绝(해치우다), 做文章(글을 짓다), 做伴(짝이 되다), 做窝(둥지를 틀다), 做官(관리가 되다), 做工(일하다), 做功夫(노력하다), 做好(성취하다), 做(作)人(처세하다), 做头儿(보람), 做事(일을 하다), 做梦(꿈을 꾸다), 做声(소리를 내다), 做菜(요리하다), 做活儿(일하다), 做厂(공장에서 일하다), 做颜色(색을 칠하다), 做惯(습관이 되다), 做生(장사를 하다), 做答(응답하다), 做成(성취하다), 做倒立(물구나무 서다), 做计(계산하다), 做注(주석을 달다), 做迷(빠지다), 做家(살림을 하다), 做手(일손), 做脸(피부관리 하다), 做心(마음을 쓰다), 做伴(짝이 되다), 做东(한턱 내다), 做活儿(일하다), 做人情(인정을 베푼다), 做戏(연극하다, 가장하다), 做手(손을 대다, 일하다), 做做样子(시늉하다), 做歹(나쁘게 하다), 做(作)贼(도둑질을 하다), 做手脚(농간을 부리다), 做骚(연기하다), 做苦力(막일을 하다), 做鬼(속임수를 쓰다)
고 (搞)	搞定(해결하다), 搞法(방식), 搞活(활성화하다), 搞头(해볼만한 가치), 搞掂(잘 처리하다), 搞对象(연애하다), 搞惯(익숙해지다), 搞分(점수를 매기다), 搞气氛(분위기를 내다), 搞脑子(머리를 쓰다), 搞单打(한 가지만 몰두하다), 搞掂(잘 처리하다), 搞卫生(청소하다), 搞两面派(이중적이다), 搞糟(실수하다, 실패하다), 搞臭(체면을 구기다), 搞鬼(음모를 꾸미다), 搞笑(웃기다), 搞小动作(속임수를 쓰다), 搞关系(연줄을 이용하다), 搞花架子(겉치레하다), 搞蒙(속이다), 搞吐(토하다), 搞毛(어설프다), 搞特权(특권을 누리다), 搞垮(망가뜨리다), 搞到手(빼앗다), 搞怪(기괴하다, 엉뚱하다), 恶搞(패러디 하다), 搞屁(방귀를 꾸다)

특히, 고정 연어형식에서 [+긍정][+부정] 의미 자질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15〉 ‘주(做)’·‘고(搞)’ 고정연어(固定搭配)의 [±긍정] 의미자질 차이



마지막으로, ‘주(做)’와 ‘고(搞)’의 화용 기능의 차이이다. 두 동사의 화용적 기능은 주로 문체 형식, 감정 색채, 지역 색채 등이 있는데, 형식동사 문체 형식의 주된 특징으로는 주로 ‘서면 형식’을 들 수 있다. 袁杰、夏允贻(1984:33)은 “특히 5·4운동 이후 허의동사(虛動)는 조사 보고, 서신, 보고서, 조례 등 각종 유형의 사무체 문장에 더욱 활발히 사용되었는데, 이는 허의동사가 하나의 정중한 어기를 나타내 문체적 색채를 더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허의동사 가운데 ‘作’, ‘從事’ 등은 본래 고대 문언에서만 사용되다가 후에야 비로소 백화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강한 문체적 색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형식동사가 구어체보다 문어체 중국어에 더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이들의 문헌 유형별 사용량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주(做)’와 ‘고(搞)’의 문체 사용 분포 비교



‘주(做)’와 ‘고(搞)’의 수반 목적어 유형과 문체 형식을 비교해 보면, 우선 두 동사 모두 명사성 목적어(NP) 보다 동사성 목적어(VP)를 수반하는 비중이 각각 61.3%와 54.1%로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명사성 목적어를 갖는 일반동사와 달리 동사성 목적어를 갖는 허사화된 형식동사임을 보여준다. 또한, 두 동사가 쓰인 문체형식을 보면, [做+VP]는 서면어 색채가 강한 소설 및 간행물과 구어체 색채가 강한 대화에 사용된 비중이 각각 75.22%와 24.77%로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높았고, [做+NP]의 사용은 50.62%와 49.3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搞+VP]는 간행물 및 문학에서의 사용 비중과 대화의 사용 비중이 각각 50.26%와 49.72%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搞+NP]의 사용 비중은 각각 82.53%과 17.46%으로 서면체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두 동사 모두 동사성 목적어를 수반하는 비중이 더 높으며, ‘주(做)’는 주로 ‘문어체’ 문장에서 사용되는 반면, ‘고(搞)’는 ‘문어체’와 ‘구어체’ 모두에서 비슷한 빈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체의 차이는 또한 두 동사의 유래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고대 중국어에서부터 오랜시간 정부기관의 제도나 공문서 등 정식 문헌에 사용돼왔던 ‘做’와 달리, ‘搞’는 본래 방언에서 탄생하여 1950년 경 비로소 중국어 보통화로 편입된 것¹⁴⁾이므로 구어체 성질이 강하고 특히 남쪽 지역의 사용빈도가 북쪽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做’는 지역적 특색 없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발전해왔기 때문에 전자는 구어체 색채가 후자는 서면어 색채가 강한 것이다. 실제 코퍼스 용례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았던 ‘搞咩’ ‘搞毛’ ‘搞乜’ ‘搞嘢’ ‘搞左’ ‘搞嘢’ 등은 모두 광둥어(粵語) 방언이다. 이렇듯, 두 동사의 문체상의 차이는 이들의 유래와 사용 지역적 특색과 밀접히 연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화용적 기능은 대응적 기능과 지시적 기능을 들 수 있는데, 두

14) 呂叔湘、朱德熙(1952)에 따르면, ‘搞’가 서남방언(西南方言)에서 유래되어 1950년 전후 정식으로 현대 중국어의 기본 어휘로 흡수되어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었다고 하였다.

동사 모두 복문에서 다른 동사를 대용하거나 선행동사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현대 중국어 예문에서 아무런 대용적 기능 없이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화된 의미를 표현하는 구문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 ⑱ a. 开提、文献综述、调查报告等都要严格按照规定来做。
(주제발표, 문헌요약, 조사보고 등 모두 엄격히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 b. 我们今天下乡调查去了, 搞了一天, 收获不少。
(우리는 오늘 시골에 조사하러 가서, 온종일 적잖은 수확은 거두었다.)
- c. 谁回去早谁去做呗。(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하자.)
- d. 如果下次你们给我一个机会, 我保证一定做到。
(다음에 기회를 한 번 주신다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 e. 没有什么方法永远行得通, 人不可能每次都一定搞定。
(영원히 통하는 방법은 없으며, 사람이 매번 모두 해낼 수는 없다.)
- f. 我们决定搞, 你来帮助我们一起搞吧。
(우리는 하기로 결정했으니, 와서 우리를 도와 같이 하자.)

예문(18a, b)에서 ‘주(做)’와 ‘고(搞)’는 모두 선행하는 구체적 동사를 대용하는 대용 지시의 역할을 하며, 각각 ‘开提、文献综述、调查报告’와 ‘调查’를 나타낸다. 그러나, 예문(18c, d, e, f)에서 두 동사는 대용 지시 기능이 없고, 단순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하다’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이들은 모두 뒤에 명사성 혹은 동사성 목적어를 갖지 않거나 혹은 문두로 이동한 화제구문에 쓰였으며, 이는 또한 현대 중국어에서 두 형식동사의 의미 기능이 점차 확장되고 허사화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증이라 하겠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대표적인 ‘하다’류 형식 동사인 ‘주(做)’와 ‘고(搞)’의 실제 코퍼스 용례 분석을 기반으로,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통사·의

미·화용적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탈범주화(decategorization) 이론에 따르면, 한 언어의 어휘가 기존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변화하는 현상은 하나의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 중국어 형식동사의 기능 변천 또한 일종의 탈범주화 과정으로, 통사적으로 점차 동사구 목적어 등 후행 성분의 범위가 확장되며 기존의 동사적 자질을 잃고 형식동사 범주로 이동하거나 확장되는 한편, 의미적으로는 더 추상화되고 일반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做)’와 ‘고(搞)’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우선, 통사적으로 ‘주(做)’와 ‘고(搞)’는 출현시기와 지역 색채의 차이를 지닌다. ‘주(做)’는 본래 고대의 ‘작(作)’에서 유래하여 남북조 시대 이후에 비로소 ‘하다’ ‘종사하다’ 의미를 갖게 되었고, 당오대 이후 점차 그 사용 빈도와 범위가 확장되며 허사화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고(搞)’는 서남방 언으로 서남지역에서만 사용되다가 1950년 전후 비로소 현대 중국어로 흡수되어 현대 중국어의 어휘의미와 문법기능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와 변천 과정의 차이로 인해 두 동사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통사·의미·화용적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

통사적 관점에서, ‘주(做)’와 ‘고(搞)’의 두드러진 차이는 목적어 성분의 음절 수였는데, ‘주(做)’는 주로 2음절 명사 혹은 동사 목적어와 결합하는 반면, ‘고(搞)’는 1음절 보어 혹은 3음절 이상 다음절 형식과 결합하였다. 이는, 현대 중국어 음부의 2음절, 4음절화 추세의 영향으로 간주되며, 특히 ‘고(搞)’는 1음절 결과보어 및 3음절 목적어와 결합하여 2음절 혹은 4음절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두 동사가 결합하는 상용 부사, 구문형식 및 보어 유형이 다소 달랐는데, ‘주(做)’는 주로 동작의 방식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와 결합한 반면, ‘고(搞)’는 주로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와의 결합이 강했다. 또한, ‘주(做)’는 주로 대상을 이끄는 전치사 ‘对’ ‘爲’ 등과 결합하여 객관적인 서술문을 구성한 반면, ‘고(搞)’는 동작 대상의 처치를 나타내는 ‘把’자문이나 뒤에 ‘得’와 결과보어나 정도보어를 수반하는 구문이 많았다.

의미적 관점에서, ‘주(做)’와 ‘고(搞)’는 동사의 내재적 의미 뿐 아니라, 목적어 성분 의미 자질에 큰 차이를 보였다. 명사구 목적어(NP)의 경우, ‘주(做)’는 주로 [+신분] [+관계] [+업종] [+활동] 등 의미 자질과 어울려 ‘종사하다’ 의미 외에도 ‘되다’ ‘말다’ ‘제작하다’ ‘진행하다’ 등 의미를 나타낸 반면, ‘고(搞)’는 주로 [-신분] [-관계] [+업종] [+제도] 등의 의미 자질과 결합하여 ‘종사하다’ ‘실행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냈다. 또한, 동사구 목적어(VP)와 결합 시, ‘주(做)’는 주로 [+의지] [+구체] [+동작] 등 의미 자질과 어울린 반면, ‘고(搞)’는 주로 [±의지] [+추상] [+상태] 의미 자질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밖에도, 보어나 고정언어 표현에서도 ‘주(做)’는 주로 [+중·긍정]의 의미 자질과 결합하는 반면, ‘고(搞)’는 [+부정] 의미 자질과 더 긴밀히 결합하였다. 이렇듯, 두 동사의 내재적 의미와 결합하는 의미 자질의 차이가 통사 구조의 차이로 발현된 것이다.

화용적 관점에서, ‘주(做)’와 ‘고(搞)’의 뚜렷한 차이는 바로 문체적 색채인데, 고대 문언에서 사용되던 ‘作’에서 파생된 ‘주(做)’는 주로 정부기관의 제도나 공문서 등 정문에 사용되어 현대 중국어에서도 주로 서면체에 사용되는 반면, 본래 서남방언에서 유래하여 지역적 특색이 짙은 ‘고(搞)’는 자연스럽게 현대 중국어에서도 상당 비중 구어체에서 사용된다. 또한, 두 동사의 대용 기능과 지시 기능에 있어서도, 본래 선행 동사 의미를 대용하던 대용적 기능에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미 확장이 이루어져 두 동사의 의미가 모두 일반화되고 허사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주(做)’보다 ‘고(搞)’의 허사화 정도가 훨씬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어의 두 형식동사 ‘주(做)’와 ‘고(搞)’는 비록 표면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지만 통사·의미·화용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지니며,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유래 및 사용 환경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김선아, 《현대중국어 형식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의수, 〈형식동사 ‘이다’의 문법〉, 《어학연구》, 제38권, 2004.
- 박덕준, 〈형식동사의 의미론적 접근〉, 카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창립 20주년 연합 학술대회 발표문, 31-45, 1999.
- 손경옥, 〈동사 ‘搞’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15집, 2002.
- 서정수, 《동사‘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75.
- 조은경, 《現代中國語‘搞’類動詞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홍연옥, 〈‘搞’의 문법화 연구-형식동사와 대동사 용법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65집, 2016.
- 刁晏斌, 《现代汉语虚义动词研究》, 辽宁师范大学出版社, 2004.
- 刁晏斌, 〈虚意动词“搞”的使用情况及其变化〉, 《宜春学院学报》, 2015.
- 胡裕树、范晓, 《动词研究综述》, 太原: 山西高校联合出版社, 1996.
- 赫琳, 《动词句同义句式研究》, 崇文书局, 2004.
- 蒋铭, 《现代汉语虚义动词非范畴化现象与表现形式》, 长沙理工大学硕士学位论文, 2013.
- 刘正光, 〈语言非范畴化的工作机制〉, 《外语研究》, 第1期, 2005.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出版社, 1980.
- 马庆株, 〈自主动词和非自主动词〉, 《中国语言学报》 第3期, 1988.
- 苗传江、陈小盟, 《现代汉语动词例释》, 北京师范大学出版社, 2011.
- 齐丽娟, 《现代汉语泛义动词探析》, 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8.
- 王健, 〈“干、搞、做”的词语搭配范围及其词义对比分析〉, 《海外华文教育》 第2期, 2002.
- 扬丽君, 〈动词“搞”在现代汉语中的语用考察〉, 《语言文字应用》, 第2期,

2002.

杨亚楠, 《泛义动词“做”、“干”、“搞”、“弄”的比较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7.

袁杰、夏允贻, 〈虚义动词纵横谈〉, 《语言研究》 第2期, 1984.

张春秀, 〈动词“搞”的句法、语义、语用分析〉, 《大庆师范学院学报》 第3期, 2007.

周刚, 〈形式动词的次分类〉, 《汉语学习》 第1期, 1987.

Hopper, P.J.& Thompson, S.A. The Discourse Basis for Lexical Categories in Universal Grammar, *Language*, (60)703-752, 1984.

Hopper, P.J.& Traugott, E.C.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Abstract >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hange of functions of the representative ‘hada(do)’-like dummy verbs ‘zuo(做)’ and ‘gao(搞)’, in-depthly distinguish between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differences from a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s.

Through this study on ‘zuo(做)’ and ‘gao(搞)’, we reached several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diachronically, ‘zuo’ originated from the original ancient word ‘zuo(作)’, and only after the inter-Korean dynasty came to have the meaning of ‘do’ and ‘to die’, and the frequency and scope of use gradually after the Tang five Dynasty. Began to expand and become vain. On the other hand, ‘gao(搞)’ is a Southwest dialect, and was absorbed into modern Chinese until around 1950, and the vocabulary meaning and grammar function of modern Chinese were

established. These two verbs are similar but have different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differences due to the difference in historical origin and transition process.

Second, syntactically, ‘zuo(做)’ is mainly combined with a two-syllable noun or verb object, while ‘gao(搞)’ is combined with a one-syllable bore or a complex object form of three or more syllables.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influence of the trend of two syllables and four syllables in modern Chinese phonemes. In addition, the common adverbs, syntax forms, and types of bore that the two verbs combine were somewhat different. ‘zuo(做)’ is mainly combined with ‘modal adverb’, which indicates the way of action or attitude, while ‘gao(搞)’ was strongly combined with the ‘degree adverb’, which mainly indicates the state or degree.

Third, semantically, ‘zuo(做)’ and ‘gao(搞)’ showed differences not only in their intrinsic verb meanings, but also in the semantic qualities of the object components they combine. ‘zuo(做)’ is mainly [+status] [+relationship] [+industry] [+activity] mainly [+Independent] [+specific] [+action] [+medium·positive], etc. In addition to the meaning of ‘to engage’, the meaning of ‘to become’, ‘to take on’, ‘to produce’, and ‘to proceed’, while ‘gao(搞)’ mainly refers to [-status] [-relationship] [+industry] [+system]. In combination with semantic features such as [± Independent] [+abstract] [+state] [+negative], the meaning of ‘to engage’ or ‘execute’ was expressed.

Fourth, pragmatically, ‘zuo(做)’ and ‘gao(搞)’ have a difference in stylistic colors, and ‘zuo(做)’ derived from ‘作’ used in ancient texts is mainly government agencies. It is used in formal documents such as the system and official documents, and is mainly used in written form in modern Chinese, whereas ‘gao’, which originally originated in the

Southwest dialect and has a strong regional character, naturally has a strong regional color, so it is a significant part of the colloquial language in modern Chinese.

In conclusion, the two dummy verbs of Chinese ‘zuo(做)’ and ‘gao(搞)’ hav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actual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terms, although they seem to have similar usages formally. It is the result of changes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Key Words : 형식 동사(Dummy verb), 기능 동사(Functional verb),
做(Zuo), 搞(Gao), 탈범주화(Decategorization), 문법화
(Grammaticalization), 기능 변천(Functional change)

